

2013년 2월

박사학위논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삶의 질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김 유 숙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삶의 질

Internet Addic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Some
Adolescents

2013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김 유 숙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삶의 질

지도교수 박 종

이 논문을 보건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보 건 학 과

김 유 숙

김유숙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전남대학교 교수 손 석 준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승 곤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 성 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 미 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종 인

2012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v
I. 서 론	1
II. 연구 방법	4
A. 연구대상.....	4
B. 변인의 측정과 척도 구성.....	4
1. 종속변수	4
a. 삶의 질	4
2. 독립변수.....	5
a. 일반적 특성.....	5
b. 개인적 특성.....	5
c. 건강 및 건강행위 특성.....	5
d. 사회·심리적 특성.....	6
(1) 부모애착.....	6
(2) 친구애착.....	6
(3) 교사애착.....	6
e. 인터넷 중독.....	6
C. 분석방법.....	7
III. 연구 결과.....	9
A. 대상자 특성.....	9
1. 일반적 특성.....	9
2. 개인적 특성.....	9
3. 건강 및 건강행위 특성.....	11
4. 사회·심리적 특성.....	12
5.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특성.....	13

B. 대상자의 삶의 질	13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13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15
3. 건강 및 건강행위 특성에 따른 삶의 질	18
C.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인터넷 중독 및 삶의 질과의 관계	21
D.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22
1. 신체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	22
2. 정서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	24
3. 사회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	26
4. 학업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	28
5. 삶의 질 전체와 인터넷 중독	30
IV. 고 찰	32
V. 요약 및 결론	37
참고문헌	39
부록	44

표 목 차

표 1. 한국형 청소년용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의 판정 기준.....	7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
표 3.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11
표 4. 대상자의 건강 및 건강행위 특성.....	12
표 5.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삶의 질 및 인터넷 중독.....	13
표 6.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특성.....	13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15
표 8.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17
표 9. 건강 및 건강행위 특성에 따른 삶의 질.....	20
표 10. 사회·심리적 특성, 인터넷 중독 및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22
표 11. 신체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의 회귀분석.....	23
표 12. 정서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의 회귀분석.....	25
표 13. 사회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의 회귀분석.....	27
표 14. 학업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의 회귀분석.....	29
표 15. 삶의 질 전체와 인터넷 중독의 회귀분석.....	31

ABSTRACT

Internet Addic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Some Adolescents

Kim, Yu Suk

Advisor : Prof. Park Jong, M.D., Ph.D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Obje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internet addiction could b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in adolescents.

Methods: Participants were 1147 middle school student. The participants completed the following measures; K-criterion for internet addiction and PedsQLTM 4.0 for quality of life.

Results: Internet addiction has a meaningful effect on quality of life including physical, emotional, social and educational area. Also the score of life quality got lower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Conclusion;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improvement of life quality for student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quality of life.

Keyword: middle school student, internet addiction, quality of life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단순한 개인 간의 의사소통의 역할을 넘어 학습, 놀이 문화, 생활 방식 등 생활 전체에 걸쳐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중요한 교육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할 정도이다(오자영, 2003).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2011년 7월 현재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78.0%, 인터넷 이용자수는 전년대비 17만 명 증가된 3천7백만 명으로 전 국민의 3분의 2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특히 10대의 인터넷 이용은 99.9%로 거의 모든 10대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는 10대는 97.8%로 나타났다. 또한 10대들의 인터넷 이용 목적은 여가활동이 98.1%, 커뮤니케이션이 96.6%, 교육과 학습이 92.3%, 자료정보 획득이 90.7%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인터넷의 발달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워지고 생활의 편리함이 주어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 인터넷 중독률이 전체 7.7%, 연령별로는 청소년이 10.4%, 성인이 6.8%로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만 5-9세인 유·아동은 7.9%로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률은 2010년에 초등학생이 13.7%로 가장 높았으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적으로는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다. 중독 유형중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의 비율은 유아동이 1.0%이고 청소년은 2.9%로 성인 1.4%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6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1). 또한, 지나친 인터넷 사용은 인터넷 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성인은 ‘정보 검색(87%)’이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은 ‘게임(65.2%), 정보 검색(64.9%), 메신저(46.1%)’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특히 청소년 중 남학생 90%, 여학생의 50%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이들은 평균 평일 1시간 36분, 주말 2시간 48분 게임을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들에게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인간발달의 연속선상에 있는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인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로서 개인의 정체감 확립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이루는 시기

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과 성인 두 환경간의 교차된 영역을 갖게 됨으로써 청소년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 시기의 인터넷 중독은 문제행동, 수면부족, 학업성적 저하, 사회성 저하 등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지장을 주며, 많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Goldberg, 1996). 입시위주의 교육과정과 사회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간이나 시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해소 방법이다. 이런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에 접촉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통하여 스트레스에 따른 괴로움을 경감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게임에 빠져들수록 내성이 생겨 중독으로 발전하게 되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김보연, 2011).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과거 선행연구를 보면 체질량지수가 높은 경우 삶의 질이 낮았고(빈성오 등, 2010),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신체활동이 적을수록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김선희와 김명, 2008). 빈곤이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신원영과 강현아, 2007; 유정원, 2012),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정연과 정현주, 2008; 김아름, 2011)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다. 인터넷 게임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비중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오윤선, 2008), 인터넷 중독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부정적 적응양상을 보인다고 보고되어있으며(정영숙, 201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행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안동근, 2005) 등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 중독과 청소년의 신체영역, 정서영역, 사회영역, 학업영역을 살펴보는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국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물질적 행복은 좋은 편이었지만 삶의 만족은 58.98점으로 22개 회원국(평균 84.77) 중 가장 낮았다(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0). 또한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복지수가 100점 만점 중 53.08점으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주관적 행복감의 지표인 ‘정서적 안녕’ 영역에서 40% 정도의 청소년이 우울감이나 불행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낮은 삶의 질은 가출이나 입시위주의 학교생활 부적응 그리고 학교 폭력, 사회 범죄, 성범죄 등 나아가 자살 등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유발한다. 특히 공교육의 환경이 입시위주에 맞추어져 있는 현대사회에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학업으로 인한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대

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현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에 몰입하고 있다(Durkin & Barber, 2002; Griffiths et al, 2004).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이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서승연과 이영호, 2007; 조춘범, 2008).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이들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런데도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이들의 삶의 질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신체·사회·학업·정서 영역의 삶의 질 그리고 전체영역의 삶의 질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2개의 중학교와 전라남도 화순군 관내 2개의 중학교 1학년 252명, 2학년 578명, 중학교 3학년 3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반은 화순지역은 전수조사, 광주지역은 홀수 반을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별 설문조사 계획 및 설문지 작성 시 주의사항을 설명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교사들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교사의 입장지도하에 자기기입 방법으로 작성하게 하여 회수하게 하였다. 총 1,182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부실한 35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14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B. 변인의 측정과 척도 구성

1. 종속변수

a. 삶의 질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Varni 등(2002)이 개발한 PedsQLTM 4.0을 사용하였다. PedsQLTM 4.0 한글판은 13~18세 사이의 청소년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개의 하부영역이 있는데 신체적 기능 8문항, 정서적 기능 5문항, 사회적 기능 5문항, 학업기능 5문항으로 되어있다. 점수는 5점 척도로 문제가 ‘전혀 없음(0점)’, ‘거의 없음(1점)’, ‘가끔 있음(2점)’, ‘자주 있음(3점)’, ‘거의 항상 있음(4점)’이며 각 문항을 0점은 100점으로, 1점은 75점으로, 2점은 50점으로, 3점은 25점으로 4점은 0점으로 변환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총점은 0점에서 23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빈성오 등, 2010; 김선혜와 김명, 2008; 정연홍, 2007). 이 연구에서 PedsQLTM 4.0 한글판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22였다.

2. 독립변수

a. 일반적 특성

지역은 광주와 전남으로 구별하였고 성별, 학년을 구분하고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없음으로 구별하였다.

b. 개인 특성

부모동거여부는 부모, 부, 모, 기타로 구분하였고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은 초졸 이하와 중졸 이하라고 응답한 그룹은 중졸로 하여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가정형편인식은 ‘매우 어렵다’와 ‘약간 어려운편이다’는 ‘나쁨’으로 ‘보통이다’는 ‘보통’으로 ‘약간 여유가 있는 편이다’와 ‘매우 여유있다’는 ‘ 좋음’으로 재분류하였다. 일주일 용돈은 ‘1만원 미만’, ‘1만원이상 5만원미만’, ‘5만원이상’으로 구분하였고 학교생활 만족은 ‘매우불만족’, ‘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으로 구분하였다. 학원 끝나는 시각은 다니지 않는 학생과 ‘9시 이전’은 ‘9시 이전’으로 ‘10시’는 ‘10시 이전’으로 ‘11시’, ‘12시’, ‘12시 이후’는 ‘10시 이후’로 재분류하였고 학교성적은 ‘매우 못함’, ‘못함’, ‘잘함’, ‘매우 잘함’으로 구분하였다.

c. 건강 및 건강행위 특성

본인 건강인지는 ‘매우 약하다’와 ‘약한 편이다’는 ‘약함’으로 ‘보통이다’는 ‘보통’으로 ‘건강한 편이다’는 ‘건강’으로 ‘매우 건강하다’는 ‘매우 건강’으로 재분류하였고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다’와 ‘거의 받지 않는다’는 ‘받지 않음’으로, ‘보통이다’는 ‘보통’으로, ‘약간 받는다’와 ‘매우 많이 받는다’는 ‘받는다’로 재분류하였다. 하루 수면시간은 단답형으로 설문한 후 ‘6시간미만’, ‘6시간이상 8시간이하’, ‘8시간초과’로 재분류하였고, 수면 시각은 ‘11시 이전’은 ‘11시 이전’으로, ‘11~12시 이전’은 ‘11~12시 이전’으로, ‘12시~1시 이전’은 ‘12~1시 이전’으로, ‘1~2시 이전’과 ‘2~3시 이전’, ‘3시 이후’는 ‘1시 이후’로 재분류하였다. 음주는 ‘현재 마신다’와 ‘마셨으나 지금은 마시지 않는다’를 ‘음주’로, ‘마셔본 적 없다’는 ‘비음주’로 재분류하였고, 흡연에서

도 ‘현재 피운다’와 ‘피웠으나 지금은 피우지 않는다’를 ‘흡연’으로, ‘피워본 적 없다’를 ‘비흡연’으로 재분류하였다. 급성질환은 ‘지난 2주 동안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의 설문에서 ‘예’를 ‘있음’으로, ‘아니오’를 ‘없음’으로 구별하였고, 만성질환에서도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앓았던 질병이 있습니까’의 설문에서 ‘예’를 ‘있음’으로, ‘아니오’를 ‘없음’으로 구별하였다. 비만은 몸무게와 키를 기입하게 하여 BMI 값을 구한 다음 25미만을 ‘없음’으로, 25 이상을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d. 사회·심리적 특성

(1) 부모애착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Ⅵ-중등6차의 패널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6개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의 척도로 총점 3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부모애착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4$ 로 나타났다.

(2) 친구애착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Ⅵ-중등6차의 패널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4개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의 척도로 총점 2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친구애착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7$ 로 나타났다.

(3) 교사에착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Ⅵ-중등6차의 패널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3개 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의 척도로 총점 1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에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교사에착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7$ 로 나타났다.

e.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정도는 김병구 등(2008)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개발한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내용은 일상생활 장애(1요인), 긍정적 기대(2요인), 금단(3요인),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4요인), 일탈행동(5요인), 내성(6요인)의 내용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게 한다’ 4점까지의 4점 Likert식 척도로 계산하였다. 고위험 사용자군은 총점 53점 이상이거나 1요인 17점 이상, 3요인 11점 이상, 6요인 12점 이상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총점 48~52점, 1요인 15점 이상, 3요인 10점 이상, 6요인 12점 이상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일반 사용자 군은 총점 47점 이하, 1요인 14점 이하, 3요인 9점 이하, 6요인 11점 이하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과 고위험 사용자 군을 인터넷 중독으로 보았다. 한국정보화 진흥원(2008)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고도화 연구에서는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4$ 로 매우 높았다(표 1).

<표 1> 한국형 청소년용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의 판정 기준

사용자군	채점기준	판정기준
고위험 사용자군	① 총점 53점 이상 ② 1요인 17점 이상 ③ 3요인 11점 이상 ④ 6요인 12점 이상	①에 해당되거나, ②~④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① 총점 48~52점 ② 1요인 15점 이상 ③ 3요인 10점 이상 ④ 6요인 12점 이상	①~④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일반 사용자군	① 총점 47점 이하 ② 1요인 14점 이하 ③ 3요인 9점 이하 ④ 6요인 11점 이하	①~④ 모두 해당되는 경우

C.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하였고 부모·교사·친구애착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삶의 질은 신체, 정서, 사회, 학업의 하위영역별로 세분하여 일반적 특성과 삶의 질은 ANOVA, 하위영역별 삶의 질과 부모·교사·친구애착 정도와 인터넷 중독 사이에 상관분석을

하였다. 하위영역별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은 분산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들을 보정한 상태에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A. 대상자 특성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광주에 거주하는 학생은 629명(54.8%), 전남은 518명(45.2%)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586명(51.1%) 여학생이 561명(48.9%)의 분포를 보였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237명(20.6%), 2학년은 565명(49.3%), 3학년은 345명(30.1%)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319명(27.8%)으로 가장 많았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지역	광주	629(54.8)
	전남	518(45.2)
성별	남	586(51.1)
	여	561(48.9)
학년	1학년	237(20.6)
	2학년	565(49.3)
	3학년	345(30.1)
종교	기독교	319(27.8)
	천주교	60(5.2)
	불교	108(9.4)
	기타	19(1.7)
	없음	641(55.9)
	계	1147(100.0)

2. 개인적 특성

부모와 동거여부에서는 부모 모두 함께 살고 있는 학생은 1008명(87.9%)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은 534명(47.9%)으로 대졸은 467명(41.9%)으로 조사되었고,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605명(52.7%), 대졸은 408명(35.6%)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 인식에

서는 ‘나쁘다’ 는 112명(9.8%), ‘보통이다’ 는 772명(67.3%), ‘좋다’ 는 262명(22.8%)으로 조사되었다. 일주일 용돈은 1만원미만이 610명(53.2%)으로, 학교생활 만족은 ‘불만족’ 은 170명(14.8%), ‘보통이다’ 는 419명(36.5%), ‘만족’ 은 467명(40.8%)이었다. 학원 끝나는 시각은 9시 이전에 귀가하는 학생은 671명(58.5%)으로 조사되었고, 학교 성적은 ‘못한다’ 는 229명(20.0%), ‘보통이다’ 는 512명(44.6%), ‘잘한다’ 는 339명(29.6%)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구 분	빈도(n=1147)	%
부모동거	부모 동거	1008	87.9
	부 동거	49	4.3
	모 동거	75	6.5
	기타	15	1.3
아버지학력	중졸 이하	34	3.0
	고졸	534	47.9
	대졸	467	41.9
	대학원 이상	80	7.2
어머니학력	중졸	31	2.7
	고졸	605	52.7
	대졸	408	35.6
	대학원	65	5.7
가정형편인식	나쁨	112	9.8
	보통	772	67.3
	좋음	262	22.8
일주일용돈	<1만원	610	53.2
	1 ~ 5만원	509	44.4
	≥5만원	28	2.4
학교생활만족	매우 불만족	91	7.9
	불만족	170	14.8
	보통	419	36.5
	만족	467	40.8
학원끝나는시각	9시 이전	671	58.5
	9시 ~ 10시	428	37.3
	10시 이후	48	4.2
학교성적	매우 못함	67	5.8
	못함	229	20.0
	보통	512	44.6
	잘함	339	29.6

3. 건강 및 건강행위 특성

본인 건강 인지도에서 96명(8.4%)이 약하다고 응답하였고, 스트레스는 726명(63.3%)이 받는다고 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이상 8시간이하는 953명(83.3%)로 잠을 자는 수면 시각은 11시~12시 이전이 522명(45.5%)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음주와 흡연

상태는 술을 마신다는 학생은 152명(13.3%), 담배를 피운다는 학생은 139명(12.1%)로 나타났다. 지난 2주일 이내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 경우가 234명(20.4%)이고, 지난 6개월 이내 질병으로 앓은 적이 있는 경우는 108명(9.4%)이었고, 비만인 학생은 45명(4.2%)이었다(표 4).

〈표 4〉 대상자의 건강 및 건강행위 특성

	구 분	빈도(n=1147)	%
본인건강인지	약함	96	8.4
	보통	370	32.3
	건강	442	38.5
	매우건강	239	20.8
스트레스	받지않음	109	9.5
	보통	312	27.2
	받음	726	63.3
수면시간	< 6	61	5.3
	6 ~ ≤8	953	83.3
	8 <	130	11.4
수면시각	11시이전	217	18.9
	11~12시이전	522	45.5
	12~1시이전	307	26.8
	1시이후	101	8.8
음주	음주	152	13.3
	비음주	995	86.7
흡연	흡연	139	12.1
	비흡연	1008	87.9
급성질환(2주동안)	없음	913	79.6
	있음	234	20.4
만성질환(6개월동안)	없음	1039	90.6
	있음	108	9.4
비만	없음	1029	95.8
	있음	45	4.2

4. 사회·심리적 특성

대상자의 부모애착 정도는 최소 6점에서 최대 30점 중 평균이 21.56±5.11점으로, 교

사에착 정도는 최소 3점에서 최대 15점 중 평균 8.03 ± 2.86 으로, 친구에착 정도는 최소 4점에서 최대 20점 중 16.02 ± 2.97 점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삶의 질 점수는 최소 400점에서 최대 2300점으로 평균 1900.1 ± 319.8 점이었다(표 5).

<표 5>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삶의 질 및 인터넷 중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사회심리적 특성	부모에착	21.56	5.11	6	30
	교사에착	8.03	2.86	3	15
	친구에착	16.02	2.97	4	20
삶의 질	신체영역	672.3	121.1	100	800
	정서영역	395.5	103.9	0	500
	사회영역	434.9	81.8	0	500
	학업영역	397.5	87.5	0	500
	전체	1900.1	319.8	400	2300

5.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특성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정상이 1041명(90.7%), 잠재적 위험군은 103명(9.0%), 고위험군은 3명(0.3%)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점수는 정상은 최소 20점 최대 45점으로 평균 24.6 ± 5.3 점이고, 잠재적 위험군은 최소 27점 최대 62점으로 평균 43.5 ± 7.1 점, 고위험군은 최소 64점 최대 80점으로 평균 71.7 ± 8.0 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특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정상	1041(90.7)	24.6	5.3	20	45
잠재적위험군	103(9.0)	43.5	7.1	27	62
고위험군	3(0.3)	71.7	8.0	64	80
전체	1147(100.0)	26.4	8.1	20	80

B. 대상자의 삶의 질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거주 지역에 따라 정서영역의 경우 광주지역 학생은 388.4 ± 104.3 점으로 전남지역 학생의 404.1 ± 102.9 점에 비해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p=.011$). 학업영역에서 광주지역 학생은 396.5 ± 83.5 점으로 전남지역 학생 398.8 ± 92.2 점에 비하여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p=.007$).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의 경우 신체영역에서 여학생이 701.2 ± 114.2 점으로 남학생 642.1 ± 120.9 점보다 낮았고($p=.000$), 정서영역에서 여학생이 418.8 ± 98.1 점으로 남학생 371.1 ± 104.3 점보다 낮았다($p=.000$). 학업영역에서는 여학생이 407.5 ± 87.3 점으로 남학생 387.0 ± 86.6 점보다 낮았으며($p=.000$), 삶의 질 전체에서 여학생이 1966.0 ± 309.7 점으로 남학생 1831.3 ± 316.0 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 신체영역의 경우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3학년이 654.8 ± 128.2 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서영역의 경우에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학년이 373.7 ± 105.3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 또한 학업영역에서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학년이 378.2 ± 88.4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 삶의 질 전체에서도 3학년은 1833.3 ± 324.4 점이 가장 낮았다($p=.000$). 종교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정서영역에서 천주교가 363.3 ± 116.6 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기독교가 382.8 ± 112.1 점으로, 기타는 384.2 ± 138.2 점으로, 종교 없음이 401.8 ± 98.3 점으로, 불교가 415.3 ± 89.7 점이었다($p=.002$). 학업영역에서는 기타가 365.8 ± 130.0 에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천주교가 375.8 ± 91.0 점, 기독교가 390.8 ± 92.0 점, 종교 없음이 402.1 ± 84.3 점, 불교가 407.6 ± 78.1 점의 순이었으며($p=.023$), 전체 삶의 질에서는 천주교가 1810.0 ± 361.7 점으로 가장 낮았고 기타가 1827.6 ± 469.0 점, 기독교는 1872.5 ± 332.5 점, 종교 없음은 1914.1 ± 308.9 점, 불교는 1961.8 ± 171.8 점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9$)(표 7).

〈표 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신체영역		정서영역		사회영역		학업영역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지역	광주	672.0	121.8	388.4	104.3	432.4	82.9	396.5	83.5	1889.3	313.7
	전남	672.6	120.4	404.1	102.9	437.9	80.4	398.8	92.2	1913.3	326.9
	p-value	.937		.011		.258		.007		.205	
성별	남자	701.2	114.2	418.8	98.1	438.6	82.7	407.5	87.3	1966.0	309.7
	여자	642.1	120.9	371.1	104.3	431.0	80.7	387.0	86.6	1831.3	316.0
	p-value	.000		.000		.118		.000		.000	
학년	1학년	684.3	111.2	409.3	98.8	442.2	77.0	403.48	89.1	1939.2	306.0
	2학년	677.9	119.7	403.0	103.2	436.8	82.5	406.8	84.5	1924.5	317.0
	3학년	654.8	128.2	373.7	105.3	426.7	83.3	378.2	88.4	1833.3	324.4
	p-value	.005		.000		.058		.000		.000	
종교	기독교	665.7	122.0	382.8	112.1	433.3	81.5	390.8	92.0	1872.5	332.5
	천주교	656.3	127.3	363.3	116.6	414.6	87.9	375.8	91.0	1810.0	361.7
	불교	692.6	109.1	415.3	89.7	446.3	72.5	407.6	78.1	1961.8	171.8
	기타	640.8	209.9	384.2	138.2	436.8	71.9	365.8	130.0	1827.6	469.0
	없음	676.6	118.3	401.8	98.3	435.6	83.0	402.1	84.3	1914.1	308.9
	p-value	.161		.002		.201		.023		.009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삶의 질은 하위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영역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한 학생이 630.7 ± 142.6 점으로 가장 낮았고, 정서영역은 엄마하고 같이 생활한 학생이 362.0 ± 125.4 점으로 가장 낮았다($p=.014$). 사회영역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생활한 학생은 410.7 ± 87.5 점으로 삶의 질이 가장 낮았고, 학업영역에서는 엄마하고 같이 생활한 학생이 355.0 ± 102.3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 삶의 질 전체에서는 엄마하고 같이 생활한 학생이 1763.7 ± 386.8 점으로 가장 낮았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한 학생은 1831.1 ± 326.1 점으로, 양부모 모두 함께 생활하지 않은 학생이 1853.3 ± 376.6 점으로, 양부모 모두와 함께 생활한 학생은 1914.3 ± 310.7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00$). 아버지 학력에 따른 삶의 질에서는 신체영역과 정서영역, 학업영역, 삶의 질 전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사회영역에서 중졸이하가 420.6 ± 85.6 점으로 가장 낮았다($p=.013$). 어머니의 학력에서는 신체영역과 정서영역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회영역의 경우 중졸이하에서 423.4 ± 88.7 점으로 가장 낮았고($p=.024$), 학업영역은 중졸이하에서 388.7 ± 100.2 점으로 가장 낮았다($p=.021$).

가정형편 인식의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신체영역에서 ‘나쁘다’는

그룹에서 641.1 ± 125.6 점으로 ‘보통이다’의 671.5 ± 121.8 점, ‘좋다’의 688.3 ± 114.7 보다 삶의 질이 낮았으며($p=.002$), 정서영역에서는 ‘나쁘다’가 351.8 ± 121.3 점으로 ‘보통이다’의 399.2 ± 99.7 점과 ‘좋다’의 403.1 ± 103.9 보다 낮았다($p=.000$). 사회영역에서는 ‘나쁘다’가 391.5 ± 108.9 점으로 삶의 질이 가장 낮았으며($p=.000$), 학업영역에서 ‘나쁘다’가 358.9 ± 96.0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 삶의 질 전체에 있어서는 ‘나쁘다’가 1743.3 ± 358.0 점으로 ‘보통이다’의 1904.2 ± 315.0 점, ‘좋다’의 1955.3 ± 296.4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일주일 용돈에 따른 삶의 질에서 신체영역과 정서영역, 학업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사회영역에서 1만원 미만은 426.9 ± 86.4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 삶의 질 전체에서 1만원 미만이 1885.0 ± 318.1 점으로 가장 낮았고, 1~5만원 미만이 1911.0 ± 324.1 점, 5만원 이상이 2033.0 ± 240.6 점으로 용돈이 적은 학생의 삶의 질이 낮았다($p=.033$).

학교생활 만족에 따른 삶의 질은 신체영역에서 불만족하다는 학생이 640.7 ± 129.1 으로 가장 낮았고($p=.000$), 정서영역에서 매우 불만족이 360.7 ± 134.4 점으로 삶의 질이 가장 낮았다($p=.000$). 사회영역에서는 매우 불만족한 학생이 413.7 ± 108.8 점으로 가장 낮았고($p=.000$), 학업영역에서 불만족인 학생이 370.3 ± 97.4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 삶의 질 전체에서 불만족인 학생이 1789.4 ± 108.1 점으로 삶의 질이 가장 낮았고, 매우 불만족은 1805.2 ± 394.8 점, 보통은 1847.1 ± 319.7 점, 만족은 1983.3 ± 266.4 점, 매우 만족은 2124.0 ± 217.5 점의 결과가 나왔다($p=.000$).

학원 끝나는 시각에 따른 삶의 질의 정도는 신체영역의 경우 10시 이후가 644.3 ± 160.6 점으로 9시 이전의 665.2 ± 121.8 점, 10시 이전의 686.6 ± 113.4 점보다 삶의 질이 낮았으며($p=.004$), 정서영역의 경우에는 10시 이후가 362.0 ± 132.9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7$). 학업영역은 10시 이후가 371.4 ± 121.9 점으로 9시 이전의 389.3 ± 91.5 점, 10시 이전의 413.2 ± 73.2 점으로 차이가 있었고, 삶의 질 전체에서도 10시 이후가 1796.4 ± 420.0 점으로 9시 이전의 1878.8 ± 318.8 점, 10시 이전의 1945.3 ± 302.8 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학교 성적에 따른 삶의 질은 정서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신체영역은 매우 못한다는 학생이 648.5 ± 148.2 점으로 가장 낮았고($p=.004$), 사회영역에서는 못한다고 423.6 ± 88.2 점으로 가장 낮았다($p=.040$). 학업영역에서는 매우 못한다고 330.6 ± 104.0 점으로 가장 낮았고($p=.000$), 삶의 질 전체에서 매우 못한다고 1798.1 ± 372.3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표 8).

〈표 8〉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신체영역		정서영역		사회영역		학업영역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부모	부모	675.7	119.1	398.9	101.2	437.6	79.6	402.1	84.4	1914.3	310.7
동거	부	662.8	121.8	385.2	101.9	410.7	87.5	372.5	97.4	1831.1	326.1
여부	모	630.7	142.6	362.0	125.4	416.0	101.5	355.0	102.3	1763.7	386.8
	기타	680.0	109.9	366.7	139.7	426.7	77.6	380.0	111.9	1853.3	376.6
	p-value	.018		.014		.023		.000		.000	
아버지	중졸	632.4	151.6	400.7	92.8	420.6	85.6	402.2	84.7	1855.9	358.3
	고졸	671.6	116.4	393.1	107.3	427.1	85.0	390.2	92.6	1881.9	327.5
학력	대졸	677.9	124.3	401.1	97.8	442.6	78.5	404.3	82.6	1925.9	311.0
	대학원	673.8	113.8	377.5	118.6	443.4	76.7	404.4	83.4	1899.1	301.0
	p-value	.197		.247		.013		.068		.146	
어머니	중졸	673.4	131.0	394.4	122.3	423.4	88.7	388.7	100.2	1879.8	401.1
	고졸	665.4	121.5	397.4	100.0	429.6	80.7	390.7	88.2	1883.0	318.5
학력	대졸	683.5	117.2	391.9	108.3	440.7	84.7	407.1	85.8	1923.0	319.9
	대학원	685.0	121.3	408.5	101.5	455.8	60.9	408.1	86.5	1957.3	273.4
	p-value	.106		.636		.024		.021		.112	
가정	나쁨	641.1	125.6	351.8	121.3	391.5	108.9	358.9	96.0	1743.3	358.0
형편	보통	671.5	121.8	399.2	99.7	436.7	78.3	396.9	86.6	1904.2	315.0
인식	좋음	688.3	114.7	403.1	103.9	448.4	72.1	415.7	80.9	1955.3	296.4
	p-value	.002		.000		.000		.000		.000	
일주	<1만원	670.2	120.9	393.5	102.1	426.9	86.4	394.4	85.8	1885.0	318.1
일	1~<5만원	671.9	122.1	396.0	106.5	442.1	76.3	401.1	88.9	1911.0	324.1
용돈	≥5만원	725.0	95.5	430.4	91.4	477.7	43.7	400.0	97.9	2033.0	240.6
	p-value	.064		.183		.000		.439		.033	
학교	매우불만족	656.9	134.6	360.7	134.4	413.7	108.8	373.9	116.2	1805.2	394.8
생활	불만족	640.7	129.1	361.5	108.1	416.9	85.8	370.3	97.4	1789.4	331.9
만족	보통	656.3	121.8	383.2	102.0	420.6	85.5	387.1	86.1	1847.1	319.7
	만족	693.7	109.7	417.6	90.8	454.1	65.8	417.9	71.5	1983.3	266.4
	매우만족	738.6	93.1	466.9	58.3	479.6	42.5	439.0	67.6	2124.0	217.5
	p-value	.000		.000		.000		.000		.000	
학원	9시이전	665.2	121.8	391.6	104.7	432.7	80.0	389.3	91.5	1878.8	318.8
끝난	10시이전	686.6	113.4	405.4	97.9	440.1	81.8	413.2	73.2	1945.3	302.8
시각	10시이후	644.3	160.6	362.0	132.9	418.8	102.7	371.4	121.9	1796.4	420.0
	p-value	.004		.007		.128		.000		.000	
학교	매우못함	648.5	148.2	391.0	131.6	428.0	93.8	330.6	104.0	1798.1	372.3
성적	못함	653.0	125.2	380.7	104.7	423.6	88.2	360.9	95.7	1818.1	340.8
	보통	673.5	113.2	400.6	99.3	434.4	82.7	401.4	79.2	1909.8	306.8
	잘함	688.8	118.8	398.5	101.4	443.4	70.5	427.7	69.8	1958.4	289.6
	매우잘함	685.7	136.3	399.6	113.3	450.0	78.4	438.1	86.2	1973.4	334.0
	p-value	.006		.175		.040		.000		.000	

3. 건강 및 건강행위 특성에 따른 삶의 질

본인건강인지에 따른 삶의 질은 신체영역부분에서 약하다고 인지한 학생이 564.6 ± 144.9 점으로 가장 낮았으며($p=.000$), 정서영역에서는 약하다고 인지한 학생이 337.2 ± 122.2 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가 나왔다($p=.000$). 사회영역에서 약하다고 인지한 학생이 379.2 ± 113.9 점으로 가장 낮았으며($p=.000$), 학업영역에서 약하다고 인지한 학생이 346.4 ± 103.8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 삶의 질 전체에서 볼 때, 약하다고 인지한 학생이 1627.3 ± 364.5 점, 보통의 1821.0 ± 318.8 점, 건강하다의 1937.2 ± 286.9 점, 매우 건강하다의 2063.6 ± 245.4 점으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00$). 스트레스에 따른 삶의 질에서는 신체영역에서 받는다는 학생이 659.8 ± 122.2 점으로 가장 삶의 질이 낮았고($p=.000$), 정서영역에서 받는다는 학생이 372.3 ± 107.6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 사회영역에서 받는다는 학생이 425.1 ± 86.6 점으로 보통이라는 학생 445.0 ± 73.1 점, 받지 않는다는 학생 471.3 ± 54.4 보다 삶의 질이 낮았고($p=.000$), 학업영역에서 받는다는 학생이 389.3 ± 89.1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 삶의 질 전체에서는 받는다는 학생이 1846.5 ± 324.3 점, 보통이라는 학생 1969.6 ± 294.8 점, 받지 않는다는 학생 2058.7 ± 265.1 점으로 삶의 질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p=.000$).

하루 평균 수면시간에 따른 삶의 질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영역에서 6시간미만이 617.2 ± 134.9 점으로 가장 낮았으며($p=.001$), 정서영역에 있어서 6시간미만이 324.6 ± 137.0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 사회영역에 있어서 6시간미만이 397.5 ± 11.7 점으로 가장 낮았고($p=.001$), 학업영역에서도 6시간미만이 356.6 ± 111.6 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p=.001$). 삶의 질 전체에서는 6시간미만이 1695.9 ± 387.1 점으로 6~8시간 이하의 1910.2 ± 312.3 점, 8시간 초과의 1925.4 ± 306.0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 잠자리에 드는 시각에 따라서 삶의 질은 신체영역에서 1시 이후가 651.5 ± 124.7 점으로 가장 낮았고($p=.001$), 정서영역에서 1시 이후가 351.5 ± 125.8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 학업영역에 있어서는 1시 이후가 368.3 ± 97.7 점으로 가장 낮았으며($p=.000$), 삶의 질 전체에서 1시 이후가 1793.1 ± 348.2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

음주 형태와 흡연 형태에 따른 삶의 질은 신체영역, 정서영역, 사회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업영역의 경우에서 술을 마시는 학생이 384.5 ± 97.9 점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학생의 399.5 ± 85.7 점보다 삶의 질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50$), 흡연하는 학생이 379.3 ± 99.1 점으로 흡연하지 않는 학생의 400.0 ± 85.5 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p=.009$). 급성질환의 유무에 따라서는 사회영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신체영역에서는 앓은 학생이 640.5 ± 136.0 점으로 앓지 않은 학생의 680.4 ± 115.7 점보다 낮았다($p=.000$). 정서영역에서 앓은 학생이 368.2 ± 120.6 점으로 앓지 않은 학생의 402.5 ± 98.0 점보다 낮았고($p=.000$). 학업영역에서는 앓은 학생이 373.0 ± 100.8 점으로 앓지 않은 학생의 403.8 ± 82.7 점보다 낮았다($p=.000$). 삶의 질 전체에서 앓은 학생이 1808.8 ± 359.7 점으로 앓지 않은 학생의 1923.6 ± 304.6 점보다 낮았다($p=.000$). 만성질환의 유무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조사되었는데, 신체영역에 있어서는 앓은 학생이 625.5 ± 152.6 점으로 앓지 않은 학생의 677.1 ± 116.4 점보다 낮았다($p=.000$). 정서영역에 있어서는 앓은 학생이 355.3 ± 122.0 점으로 앓지 않은 학생의 399.7 ± 101.0 점보다 더 낮았고($p=.000$), 사회영역에서는 앓은 학생이 416.2 ± 102.4 점으로 앓지 않은 학생의 436.8 ± 79.1 점보다 낮았다($p=.013$). 학업영역에서는 앓은 학생이 367.8 ± 105.5 점으로 앓지 않은 학생의 400.6 ± 84.9 점보다 낮았고($p=.000$), 삶의 질 전체에서는 앓은 학생이 1764.8 ± 397.4 점으로 앓지 않은 학생의 1914.2 ± 307.5 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p=.000$).

인터넷 중독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는 신체영역의 경우 고위험군이 200.0 ± 114.6 점, 잠재적 위험군이 583.5 ± 125.5 점으로 정상의 682.4 ± 114.3 점보다 낮았고($p=.000$), 정서영역의 경우 고위험군이 91.7 ± 137.7 점, 잠재적 위험군이 332.0 ± 108.1 점으로 정상의 402.6 ± 100.0 점보다 낮았다($p=.000$). 사회영역의 경우 고위험군이 325.0 ± 175.0 점, 잠재적 위험군이 380.1 ± 91.4 점으로 정상 440.6 ± 78.3 점보다 낮았고($p=.000$), 학업영역의 경우 고위험군이 125.0 ± 175.0 점, 잠재적 위험군이 318.2 ± 91.7 점으로 정상의 406.1 ± 81.5 점보다 낮았다($p=.000$). 삶의 질 전체에서도 고위험군이 741.7 ± 430.4 점으로 가장 낮았다($p=.000$)(표 9).

〈표 9〉 건강 및 건강행위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신체영역		정서영역		사회영역		학업영역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본인 건강 인지	약함	564.6	144.9	337.2	122.2	379.2	113.9	346.4	103.8	1627.3	364.5
	보통	640.1	119.4	375.5	104.8	422.8	82.8	382.5	86.2	1821.0	318.8
	건강	692.0	103.6	403.9	96.8	438.0	74.0	403.3	81.5	1937.2	286.9
	매우건강	728.8	100.1	434.2	89.4	470.0	59.3	430.5	78.6	2063.6	245.4
p-value		.000		.000		.000		.000		.000	
스트레스	받지않음	707.1	116.8	454.8	74.7	471.3	54.4	425.5	81.2	2058.7	265.1
	보통	689.1	115.8	428.7	85.2	445.0	73.1	406.9	83.1	1969.6	294.8
	받음	659.8	122.2	372.3	107.6	425.1	86.6	389.3	89.1	1846.5	324.3
	p-value	.000		.000		.000		.000		.000	
수면 시간	< 6	617.2	134.9	324.6	137.0	397.5	109.2	356.6	111.6	1695.9	387.1
	6 ~ ≤ 8	675.7	119.6	398.0	100.5	436.7	79.8	399.8	84.1	1910.2	312.3
	8 <	672.9	120.0	411.2	98.6	440.4	76.1	401.0	93.8	1925.4	306.0
	p-value	.001		.000		.001		.001		.000	
수면 시각	11시이전	677.1	114.4	411.1	97.7	437.2	81.7	401.4	93.0	1926.7	309.8
	11~12시이전	685.3	117.2	406.4	95.4	438.4	78.9	406.5	79.9	1936.6	295.2
	12~1시이전	653.5	128.1	380.5	108.6	431.5	80.4	389.1	89.9	1854.6	344.5
	1시이후	651.5	124.7	351.5	125.8	421.8	98.8	368.3	97.7	1793.1	348.2
	p-value	.001		.000		.235		.000		.000	
음주	비음주	671.0	119.6	397.1	102.3	434.8	80.9	399.5	85.7	1902.4	315.6
	음주	680.8	130.4	384.7	113.5	435.4	87.9	384.5	97.9	1885.4	347.0
	p-value	.354		.169		.937		.050		.541	
흡연	비흡연	671.2	120.5	396.7	101.2	434.8	80.6	400.0	85.5	1902.7	315.2
	흡연	680.4	125.5	386.5	121.6	435.4	90.2	379.3	99.1	1881.7	351.9
	p-value	.399		.277		.932		.009		.468	
급성 질환	없음	680.4	115.7	402.5	98.0	436.9	78.8	403.8	82.7	1923.6	304.6
	있음	640.5	136.0	368.2	120.6	427.1	92.2	373.0	100.8	1808.8	359.7
	p-value	.000		.000		.105		.000		.000	
만성 질환	없음	677.1	116.4	399.7	101.0	436.8	79.1	400.6	84.9	1914.2	307.5
	있음	625.5	152.6	355.3	122.0	416.2	102.4	367.8	105.5	1764.8	397.4
	p-value	.000		.000		.013		.000		.000	
비만	없음	674.4	122.0	394.8	104.4	434.9	81.2	396.6	87.6	1900.8	321.6
	있음	640.6	120.2	395.0	121.8	426.1	87.6	411.1	93.3	1872.8	338.6
	p-value	.069		.991		.478		.279		.569	
인터넷 중독	정상	682.4	114.3	402.6	100.0	440.6	78.3	406.1	81.5	1931.8	301.0
	잠재적위험	583.5	125.5	332.0	108.1	380.1	91.4	318.2	91.7	1613.8	298.5
	고위험	200.0	114.6	91.7	137.7	325.0	175.0	125.0	175.0	971.7	430.4
	p-value	.000		.000		.000		.000		.000	

C.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인터넷 중독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사회·심리적 특성, 인터넷 중독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삶의 질의 하위영역들 사이에 신체영역과 정서영역은 $r=.57$, 신체영역과 사회영역은 $r=.51$, 신체영역과 학업영역은 $r=.56$, 정서영역과 사회영역은 $r=.56$, 정서영역과 학업영역은 $r=.53$, 사회영역과 학업영역은 $r=.49$ 으로 모든 영역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 심리적 특성에서도 부모애착과 교사애착은 $r=.28$,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은 $r=.30$, 교사애착과 친구애착은 $r=.12$ 로 모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사회·심리적 특성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부모애착이 신체영역, 정서영역, 사회영역, 학업영역, 삶의 질 전체($r=.19, r=.22, r=.20, r=.27, r=.27$)의 결과를 보였고 교사애착은 신체영역, 정서영역, 사회영역, 학업영역, 삶의 질 전체 ($r=.08, r=.13, r=.09, r=.14, r=.13$)로 친구애착은 신체영역, 정서영역, 사회영역, 학업영역, 삶의 질 전체($r=.15, r=.12, r=.28, r=.12, r=.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터넷 중독과 삶의 질의 하위영역과의 관계에서는 신체영역, 정서영역, 사회영역, 학업영역, 삶의 질 전체($r=-.26, r=-.22, r=-.22, r=-.31, r=-.31$)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사회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도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r=-.10, r=-.04, r=-.08$)으로 교사애착을 제외한 나머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10).

〈표 10〉 사회·심리적 특성, 인터넷 중독 및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삶의 질					사회 심리적 특성			인터넷 중독
	신체 영역	정서 영역	사회 영역	학업 영역	전체	부모 애착	교사 애착	친구 애착	
신체영역	1								
정서영역	.57**	1							
사회영역	.51**	.56**	1						
학업영역	.56**	.53**	.49**	1					
삶의 질 전체	.85**	.83**	.77**	.78**	1				
부모애착	.19**	.22**	.20**	.27**	.27**	1			
교사애착	.08**	.13**	.09**	.14**	.13**	.28**	1		
친구애착	.15**	.12**	.28**	.12**	.20**	.30**	.12**	1	
인터넷 중독	-.26**	-.22**	-.22**	-.31**	-.31**	-.10**	-.04	-.08*	1

* $p < 0.05$, ** $p < 0.01$

D.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1. 신체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

삶의 질의 신체영역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신체영역의 삶의 질은 29.1%의 회귀모형 설명력으로 성별, 어머니와 동거여부, 본인건강인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부모애착, 친구애착과 관련이 있었다.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아질수록 신체영역의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중독 수준에 따라 정상에 비해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표 11).

〈표 11〉 신체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의 회귀분석

변 인		B	β	t	p
성별(/남)		-137.998	-.216	-8.596	.000
학년(/1학년)	2학년	-14.035	-.022	-.690	.490
	3학년	-53.124	-.076	-2.324	.020
동거여부(/부모)	부	6.189	.010	.408	.683
	모	-29.305	-.060	-2.330	.020
	기타	28.870	.027	1.066	.287
학교생활만족(/매우만족)	만족	-2.902	-.011	-.219	.826
	보통	-17.519	-.070	-1.289	.198
	불만족	-24.668	-.072	-1.636	.102
	매우불만족	-19.869	-.044	-1.157	.247
학원끝나는시각(/9시이전)	10시 이전	9.089	.036	1.359	.174
	10시 이후	-14.082	-.023	-.895	.371
학교 성적(/매우잘함)	잘함	5.909	.021	.401	.689
	보통	-2.199	-.009	-.154	.877
	못함	1.527	.005	.099	.921
	매우못함	-10.858	-.021	-.578	.563
본인건강인지(/매우건강)	건강	-20.677	-.083	-2.422	.016
	보통	-59.052	-.228	-6.508	.000
	약함	-126.544	-.290	-9.707	.000
스트레스(/받지않음)	보통	7.516	.028	.638	.524
	받음	-5.390	-.021	-.481	.630
수면시간(/8시간이상)	6 ~ ≤ 8	5.731	.018	.547	.585
	< 6	-16.924	-.031	-.949	.343
수면시각(/11시이전)	11~12시이전	-.785	-.003	-.087	.931
	12~1시이전	-10.249	-.037	-1.009	.313
	1시이후	10.352	.024	.730	.466
급성질환(/있음)		9.428	.031	1.175	.240
만성질환(/있음)		22.270	.053	2.023	.043
부모애착		1.952	.082	2.801	.005
교사애착		-1.164	-.028	-.994	.320
친구애착		3.113	.076	2.836	.005
인터넷중독(/없음)		-99.893	-.239	-9.247	.000
인터넷중독정도(/정상)*	잠재적위험	-91.998	-.217	-8.503	.000
	고위험	-392.016	-.166	-6.399	.000
Adj R ²					.291
F					15.648**

*인터넷 중독 점수를 제외한 값

2. 정서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

삶의 질의 하위영역 중 정서영역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서영역의 삶의 질은 27.9%의 회귀모형 설명력으로 성별, 기독교, 학교 생활 만족, 본인 건강인지, 스트레스, 6시간미만의 수면시간, 부모애착, 친구애착과 관련이 있었다.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아질수록 정서영역의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중독 수준에 따라 정상에 비해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표 12).

〈표 12〉 정서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의 회귀분석

변인		B	β	t	p
지역(/전남)		1.303	.006	.172	.863
성별(/남)		-44.661	-.215	-8.024	.000
학년(/1학년)	2학년	-2.554	-.012	-.321	.748
	3학년	-18.112	-.080	-1.696	.090
종교(/무종교)	기독교	-13.030	-.056	-2.098	.036
	천주교	-23.068	-.050	-1.908	.057
	불교	.997	.003	.107	.915
	기타	-2.976	-.004	-.142	.887
부모동거(/부모)	부	2.104	.004	.159	.874
	모	-14.208	-.034	-1.293	.196
	기타	-.654	-.001	-.028	.978
가정형편(/좋은)	보통	9.701	.044	1.459	.145
	나쁨	-16.237	-.046	-1.543	.123
학교생활만족(/매우만족)	만족	-15.666	-.072	-1.365	.173
	보통	-31.516	-.146	-2.663	.008
	불만족	-41.734	-.143	-3.171	.002
	매우불만족	-45.369	-.117	-3.309	.002
학원끝나는시각(/9시이전)	10시 이전	5.551	.026	.960	.337
	10시 이후	-14.249	-.028	-1.039	.299
본인건강인지(/매우건강)	건강	-14.475	-.068	-1.960	.050
	보통	-29.334	-.132	-3.735	.000
	약함	-52.778	-.141	-4.673	.000
스트레스(/받지않음)	보통	-6.487	-.028	-.634	.526
	받음	-43.698	-.203	-4.489	.000
수면시간(/8시간이상)	6 ~ ≤ 8	-3.270	-.012	-.360	.719
	< 6	-34.915	-.076	-2.257	.024
수면시각(/11시이전)	11~12시이전	-5.693	-.027	-.731	.465
	12~1시이전	-8.244	-.035	-.937	.349
	1시이후	-14.573	-.040	-1.189	.235
급성질환(/있음)		5.338	.021	.776	.438
만성질환(/있음)		16.627	.046	1.744	.082
부모애착		1.840	.090	3.098	.002
교사애착		.535	.015	.527	.598
친구애착		1.946	.056	2.040	.042
인터넷중독(/없음)		-66.239	-.185	-7.054	.000
인터넷중독정도(/정상)*	잠재적위험	-61.378	-.169	-6.500	.000
	고위험	-252.491	-.124	-4.714	.000
Adj R ²			.279		
F			13.647**		

*인터넷 중독 점수를 제외한 값

3. 사회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

삶의 질의 하위영역 중 사회영역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영역의 삶의 질은 23.3%의 회귀모형 설명력으로 1만원미만의 일주일 용돈, 가정형편을 나쁘다고 인식한 경우, 학교생활 만족, 본인건강인지, 스트레스, 6시간미만의 수면시간, 친구애착과 관련이 있었다.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아질수록 사회영역의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중독 수준에 따라 정상에 비해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표 13).

〈표 13〉 사회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의 회귀분석

변인		B	β	t	p
부모동거(/부모)	부	-15.076	-.037	-1.381	.167
	모	-8.265	-.025	-.935	.350
	기타	5.593	.008	.295	.768
아버지학력(/대학원)	대졸	1.639	.010	.180	.857
	고졸	-5.939	-.036	-.635	.525
	중졸	-9.540	-.020	-.555	.579
어머니학력(/대학원)	대졸	-13.825	-.081	-1.437	.151
	고졸	-15.856	-.097	-1.634	.102
	중졸	-22.006	-.043	-1.217	.224
가정형편인식(/ 좋음)	보통	.406	.002	.074	.941
	나쁨	-35.236	-.128	-4.045	.000
일주일용돈(/≥5만원)	1~<5만원	-21.212	-.129	-1.489	.137
	<1만원	-32.671	-.200	-2.297	.022
학교생활만족(/매우만족)	만족	-2.820	-.016	-.303	.762
	보통	-23.319	-.138	-2.431	.015
	불만족	-20.990	-.091	-1.979	.048
	매우불만족	-31.664	-.104	-2.643	.008
학교성적(/매우잘함)	잘함	-2.875	-.015	-.276	.783
	보통	-5.771	-.035	-.571	.568
	못함	-1.900	-.009	-.173	.862
	매우못함	2.272	.007	.171	.864
본인건강인지(/매우건강)	건강	-23.992	-.143	-4.009	.000
	보통	-29.011	-.166	-4.578	.000
	약함	-65.198	-.221	-7.213	.000
스트레스(/받지않음)	보통	-10.080	-.055	-1.214	.225
	받음	-23.428	-.138	-2.976	.003
수면시간(/8시간이상)	6 ~ ≤ 8	-4.411	-.020	-.645	.519
	< 6	-32.904	-.091	-2.880	.004
만성질환(/있음)		.489	.002	.065	.948
부모애착		.193	.012	.401	.688
교사애착		-.622	-.022	-.768	.443
친구애착		5.852	.213	7.603	.000
인터넷중독(/없음)		-44.996	-.160	-6.010	.000
인터넷중독정도(/정상)*	잠재적위험	-44.093	-.155	-5.819	.000
	고위험	-77.724	-.049	-1.817	.070
	Adj R ²		.233		
	F		11.530	**	

*인터넷 중독 점수를 제외한 값

4. 학업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

삶의 질의 하위영역 중 학업영역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업영역의 삶의 질은 30.1%의 회귀모형 설명력으로 성별, 어머니와 동거여부, 가정형편을 나쁘다고 인식한 경우, 10시 이전에 학원이 끝나는 환경, 본인건강인지, 학교 성적, 부모애착과 관련이 있었다.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아질수록 학업영역의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중독 수준에 따라 정상에 비해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표 14).

〈표 14〉 학업영역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의 회귀분석

변인		B	β	t	p
성별(/남)		-23.657	-.135	-5.031	.000
학년(/1학년)	2학년	2.436	.014	.414	.679
	3학년	-12.857	-.067	-1.940	.053
종교(/무종교)	기독교	-6.509	-.033	-1.266	.206
	천주교	-15.387	-.039	-1.530	.126
	불교	-3.530	-.012	-.456	.649
	기타	-9.905	-.014	-.566	.571
부모동거(/부모)	부	-7.545	-.017	-.680	.497
	모	-20.665	-.059	-2.262	.024
	기타	5.916	.008	.303	.762
어머니학력(/대학원)	대졸	-.122	-.001	-.015	.988
	고졸	-6.575	-.038	-.811	.418
	중졸	-14.456	-.026	-.924	.356
가정형편인식 (/ 좋음)	보통	.446	.002	.079	.937
	나쁨	-19.039	-.065	-2.148	.032
학교생활만족(/매우만족)	만족	4.997	.027	.523	.601
	보통	-9.804	-.054	-.994	.320
	불만족	-17.894	-.073	-1.636	.102
	매우불만족	-13.697	-.042	-1.104	.270
학원끝나는시각(/9시이전)	10시 이전	10.774	.060	2.235	.026
	10시 이후	-18.611	-.043	-1.629	.104
학교성적(/매우잘함)	잘함	-9.951	-.049	-.930	.352
	보통	-31.297	-.178	-3.006	.003
	못함	-53.288	-.244	-4.713	.000
	매우못함	-78.578	-.211	-5.737	.000
본인건강인지(/매우건강)	건강	-13.209	-.074	-2.144	.032
	보통	-20.862	-.111	-3.182	.002
	약함	-47.533	-.151	-5.067	.000
스트레스(/받지않음)	보통	-3.822	-.019	-.449	.654
	받음	-8.209	-.045	-1.017	.309
수면시간(/8시간이상)	6 ~ ≤ 8	-6.021	-.026	-.797	.425
	< 6	-18.190	-.047	-1.414	.158
수면시각(/11시이전)	11~12시이전	-.712	-.004	-.110	.912
	12~1시이전	-4.477	-.023	-.613	.540
	1시이후	-6.527	-.021	-.636	.525
음주		.625	.003	.100	.920
흡연		5.639	.026	.872	.384
급성질환(/있음)		10.584	.049	1.831	.067
만성질환(/있음)		10.130	.034	1.275	.202
부모애착		1.541	.090	3.041	.002
교사애착		.840	.028	.996	.320
친구애착		.891	.030	1.120	.263
인터넷중독(/없음)		-74.729	-.248	-9.579	.000
인터넷중독정도(/정상)*	잠재적위험	-70.528	-.231	-8.989	.000
	고위험	-223.879	-.131	-5.030	.000
Adj R ²			.301		
F			12.444**		

*인터넷 중독 점수를 제외한 값

5. 삶의 질 전체와 인터넷 중독

삶의 질의 신체영역, 정서영역, 사회영역, 학업영역을 합한 전체의 삶의 질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인 삶의 질은 37.2%의 회귀모형 설명력으로 성별, 3학년, 어머니와의 동거여부, 가정형편을 나쁘다고 인식한 경우, 학교생활 만족, 본인건강인지, 스트레스, 6시간미만의 수면시간, 부모애착, 친구 애착과 관련이 있었다.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은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중독 수준에 따라 정상에 비해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표 15).

〈표 15〉 삶의 질 전체와 인터넷 중독의 회귀분석

변인		B	β	t	p
성별(/남)		-137.998	-.216	-8.596	.000
학년(/1학년)	2학년	-14.035	-.022	-.690	.490
	3학년	-53.124	-.076	-2.307	.021
종교(/무종교)	기독교	-19.339	-.027	-1.090	.276
	천주교	-44.271	-.031	-1.273	.203
	불교	4.901	.004	.183	.855
	기타	.012	.000	.000	1.00
부모동거(/부모)	부	-9.786	-.006	-.258	.796
	모	-69.650	-.054	-2.203	.028
	기타	42.696	.015	.631	.528
가정형편인식(/좋은)	보통	11.034	.016	.569	.570
	나쁨	-86.950	-.081	-2.829	.005
일주일용돈(/≥5만원)	1~<5만원	-50.907	-.079	-1.008	.314
	<1만원	-68.186	-.107	-1.354	.176
학교생활만족(/매우만족)	만족	-13.233	-.020	-.400	.689
	보통	-77.402	-.117	-2.271	.023
	불만족	-102.246	-.114	-2.700	.007
	매우불만족	-109.555	-.092	-2.552	.011
학원끝나는시각(/9시이전)	10시 이전	29.729	.045	1.782	.075
	10시 이후	-58.758	-.037	-1.484	.138
학교성적(/매우잘함)	잘함	-9.921	-.013	-.268	.789
	보통	-39.661	-.062	-1.106	.269
	못함	-55.900	-.070	-1.445	.149
	매우못함	-81.479	-.060	-1.727	.084
본인건강인지(/매우건강)	건강	-71.215	-.109	-3.344	.001
	보통	-136.562	-.200	-6.035	.000
	약함	-292.322	-.254	-9.003	.000
스트레스(/받지않음)	보통	-12.939	-.018	-.439	.661
	받음	-78.472	-.118	-2.807	.005
수면시간(/8시간이상)	6 ~ ≤ 8	-7.742	-.009	-.296	.767
	< 6	-104.047	-.073	-2.330	.020
수면시각(/11시이전)	11~12시이전	-9.093	-.014	-.406	.685
	12~1시이전	-21.068	-.029	-.833	.405
	1시이후	-3.638	-.003	-.103	.918
급성질환(/있음)		16.193	.020	.811	.418
만성질환(/있음)		51.935	.047	1.896	.058
부모애착		5.681	.091	3.263	.001
교사애착		-.598	-.005	-.205	.838
친구애착		12.035	.112	4.383	.000
인터넷중독(/없음)		-288.027	-.262	-10.650	.000
인터넷중독정도(/정상)*	잠재적위험	-280.046	-.251	-10.341	.000
	고위험	-917.195	-.147	-5.982	.000
Adj R ²			.365		
F			21.527**		

*인터넷 중독 점수를 제외한 값

IV. 고찰

인터넷 발달로 인한 인터넷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이 늘어나고, 게임 등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어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 결과가 나타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삶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인터넷 중독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삶의 질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했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은 평균 26.4 ± 8.1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석진(2011)의 평균 29.76 ± 7.70 점, 임정은(2012)의 30.4 ± 9.2 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률은 평균 9.2%으로 나타났다. 이는 12.4%라고 보고한 행정안전부(2010), 주석진(2011)의 11.0%, 임정은(2012)의 10.3%와 비슷한 비율이다. 또한, 대상자의 삶의 질은 평균 1900.1 ± 319.8 점으로 정연홍(2007)의 남학생 1852.4 ± 324.0 점, 여학생 1760 ± 309.9 점과 최은석(2004)의 1893.1 ± 282.2 점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신체영역의 경우 인터넷 중독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낮았다. 이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두통, 팔이나 어깨의 통증, 소화불량, 수면부족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Young, 1996). 정서영역의 경우 인터넷 중독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인터넷 게임을 한 후 환각증세, 환청증세를 보이기도 하며(남영옥과 이상준, 2005)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주로 집에서 혼자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단절된다(안동근, 2005). 또한 우울감과 조울감, 외로움이 증가하고(Young, 1996) 게임 후에는 매우 폭력적이거나 신경질적이 되기도 하여(남영옥과 이상준, 2005)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사료된다. 사회영역의 경우 인터넷 중독된 청소년이 삶의 질이 낮았다. 온라인 게임으로 인해 친구와 오프라인에서 싸우거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안동근, 2005) 친구뿐만 아니라 연인, 부부, 부모 사이에 심각한 방해로 받아(Young, 1996)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며 특히 친구지지가 인터넷 중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조춘범, 2001). 학업영역 삶의 질에서도 인터넷 중독은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 이유는 과도한 인터넷 사용이 학업과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Goldberg, 1996) 학업성적의 저하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적응양상을 가져와(안석, 2000; 최명훈, 2012)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질 전체에서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을수

록 청소년의 삶의 질이 낮았다. 이는 지나친 게임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로 스트레스를 받아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이며(안동근, 2005) 또한, 온라인 게임은 삶의 질과 부적인 관계에 있어 게임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Leung, 2004)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은 신체, 정서, 사회, 학업의 모든 영역으로 연결이 되어있어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낮아진 것이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가정, 사회, 학교의 긴밀한 협조로 포괄적인 접근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애착은 삶의 질과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감정이입, 사고력 향상 및 정서를 인식하거나 표현, 조절력이 높아지며(김재현, 2007; 문정윤, 2004; 안숙영, 2006), 심리적인 안녕감이 높아져(이미숙, 2010; 이순성, 2010)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 되고, 따라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김아름, 2011). 교사에착은 모든 영역의 삶의 질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행복감을 많이 경험하여(허영선, 2009)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이순성, 2010) 청소년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김아름, 2011)고 할 수 있다. 친구애착은 삶의 질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졌다. 이는 친구지지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성, 사회적 위축성, 과잉 불안의 행동 문제가 더 많고(이경주, 1997), 특히 남학생의 경우 친구지지가 낮을수록 공격적 행동, 비행, 과잉 활동성이 높아진다(김인숙, 2001). 또한, 친구애착이 높을수록 타인을 신뢰하고 안정감 안에서 희망을 가지며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장휘숙, 1998) 등 자기효능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박수길, 2000; 문승태, 2002).

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질은 정서영역에서 도시지역이 군지역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질이 더 낮았고, 신체·사회·학업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도시가 군보다 삶의 질이 더 낮았다. 이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도시보다는 군 단위의 지역사회가 친지나 지인의 감독으로 인해 관심이 더 높아 지역사회 유해환경이 적을수록,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독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이명순, 2006)와 같다고 보며,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감독이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곽수란, 2007)가 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삶의 질은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학생의 삶의 질이 높았다. 허영선(2009)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행복감을 더 높게 느끼고 있다고 하였고, 김혜원과 홍미애(2007), 이은경(2007), 조명한 등(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춘기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민감한 정서상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학생에 대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종교는 신체영역에서는 불교가 가장 삶의 질이 높고 기타가 가장 낮으며, 사회영역에서는 기타가 가장 높고 천주교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영역이나 학업영역에서는 불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삶의 질이 개신교 그룹이 가장 높고 다음 불교, 천주교 순서라고 보고한 연구(서주연, 2010)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4개의 대상학교 중 한 곳이 불교 학교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교의 종교를 가진 학생이 많아 통계적인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

부모동거여부의 경우 부모 모두와 함께 생활하는 학생의 삶의 질이 편부, 편모, 기타의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질이 높았다. 이는 한 부모 가정보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에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정연홍, 2007)와 일치하였다.

학교생활 만족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의 경우가 만족과 매우 만족의 경우보다 삶의 질이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삶의 질이 높고(정연홍, 2007), 학교생활의 만족에 따라 긍정적인 행동관을 보인다는 결과(이정숙과 최봉실, 2001)와 같이 학교생활 만족 정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성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문제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형편 인식에서 나쁘다고 응답한 학생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삶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는데,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정연홍, 2007), 가정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상대적 박탈감과 스트레스가 높아지며(이근복과 정우석, 2007), 빈곤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유정원, 2012), 가족의 경제수준이 삶의 만족도나 주관적인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hek, 2003; Park & Peterson, 2006)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가정 내 사회자본이 다소 약할 수 있는 계층의 학생들에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성적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삶의 질의 하위영역인 정서영역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그룹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았고, 다음으로 상위그룹, 하위그룹의 순이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학교 성적과 다른 하위영역인 신체·사회·학업영역에서는 잘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위 30% 학생들의 주관적 삶의 질이 중위권과 하위 30% 학생들의 주관적 삶의 질보다 유의하게 높고 중위권 학생들도 하위권인 학생들보다 삶의 질이 더 높다고 보고한 연

구(이기혜, 2012)와 같은 결과이고, 학업 성적이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임미향과 박영신, 2006; 김의철과 박영신, 2008)와 일치한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모든 영역의 삶의 만족도에서 약하다, 보통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건강하다는 순으로 통계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건강과 삶의 질의 척도는 매우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는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보통이다,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삶의 질이 월등히 높았다.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이나 자살계획과 같은 극단적 사고나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한 연구(양승연, 2004; 김진주와 조규관, 2011)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시켜주어야 한다고 보고한 연구(김남정과 임영식, 2012)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루 평균 수면시간과의 관계에서도 삶의 질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는데 6시간미만의 수면시간은 6시간이상의 학생보다 삶의 질이 낮았다. 이는 짧은 수면시간이 삶의 질을 떨어지게 한다고 한 연구(Kohatsu et al., 2006; Bjorvatn et al., 2007)와 같은 결과이다. 잠자리에 드는 시각에서는 사회영역을 제외하고 12시 이후에 자는 학생들이 12시 이전에 자는 학생들에 비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 늦은 수면시각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로인한 불충분한 휴식으로 인해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다 사료된다.

급성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서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건강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관점(Penedo & Jason, 2005)과 같으며 정신건강이 양호한 사람일수록 만성적 신체질병으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3배 정도 낮다는 결과(Keyes, 2005)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에서처럼 건강한 사람은 질병이나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의 표본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차이로 일반화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자기 보고식 설문지 형식으로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부정반응 문항에서 거짓 기입이 가능하다는 한계, 무응답으로 제외된 자료가 미칠 영향 등 자기보고식 검사와 함께 관찰자 척도를 활용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조사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조사방법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이 삶의 질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V. 요약 및 결론

인터넷 중독과 중학생의 삶의 질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광주, 전남 소재 4개의 중학교 1,182명의 학생 중 응답이 부실한 35명을 제외하고 남학생 586명, 여학생 561명으로 총 1,1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지역, 성별, 학년, 종교) 및 개인특성(부모동거여부, 부모 학력, 가정형편, 일주일 용돈, 학교생활만족, 학원시간, 학교 성적,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건강 특성(본인건강인지, 스트레스 여부, 수면시간, 수면시각, 음주, 흡연, 급성질환, 만성질환, 비만, 인터넷 중독)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설문 도구로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K-척도)와 삶의 질 척도인 PedsQLTM 4.0을 사용였고 SPSS versio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ANOVA, 상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로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은 3명(0.3%), 잠재적 위험군은 103명(9.0%), 정상은 1041명(90.8%)이었다.

둘째,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의 평균은 71.7 ± 8.0 점, 잠재적 위험군은 평균 43.5 ± 7.1 , 정상은 24.6 ± 5.3 점이었으며 대상자 전체의 평균은 26.4 ± 8.1 점이었다.

셋째, 대상자의 삶의 질 점수는 신체영역은 672.3 ± 121.1 점, 정서영역은 395.5 ± 103.9 점, 사회영역은 434.9 ± 81.8 점, 학업영역은 397.5 ± 87.5 점, 전체는 1900.1 ± 319.8 점이었다.

넷째, 신체영역의 삶의 질에서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신체영역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239$, $t = -9.24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정서영역에서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정서영역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185$, $t = -7.05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사회영역에서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정서영역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160$, $t = -6.01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학업영역에서도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정서영역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248$, $t = -9.57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삶의 질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다섯째, 인터넷 중독과 삶의 질 전체의 회귀분석 결과는 37.2%의 설명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beta=-.262$, $t=-10.650$) 결과를 보였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삶의 질 전체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중독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심해 질수록 삶의 질이 낮은 결과로 보아 인터넷 중독 점수와 수준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며, 인터넷 중독의 예방을 위한 대안적인 문화 활동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인터넷 중독의 치료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곽수관. 초·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007; 17(1): 1-21.
- 김남정, 임영식.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재 효과. 청소년학연구 2012; 19(8): 219-240.
- 김병구, 김동일, 김동민, 고영삼, 엄나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 고도화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연구보고 2008; 7-13.
- 김보연. 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선혜, 김명, 청소년의 비만도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2008; 9(1): 47-61.
- 김아름.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인숙. 중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 친구 지지와 행동문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김의철, 박영신.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2):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004; 14(1S): 63-109.
- 김재현. 부모 애착 및 아동의 정서지능과 친구관계 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김정연, 정현주.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2008; 13: 171-190.
- 김진주, 조규관.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2011; 12(1): 301-314.
- 김혜원, 홍미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007; 14(2): 269-297.
- 남영옥, 이상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유형에 따른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정신건강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05; 57(3): 195-222.
- 문승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문정윤. 중학생의 부·모·또래 애착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박수길.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 빈성오, 강성욱, 정성화, 백혜진, 송근배. 일부 청소년들의 영양상태 및 건강관련 행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2010.; 11(2): 57-69.
- 서승연, 이영호.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몰두 성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2007; 26(2): 391-405.
- 서주연. 종교활동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경북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신원영, 강현아.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08; 15(4): 57-87.
- 안동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행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5; 9(4): 259-285.
- 안석.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 서울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안숙영. 초등학교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양승연.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1.
- 오윤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8; 6(4): 241-279.
- 오자영. 중·고등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유정원. 빈곤이 청소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생태체계 변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012; 16(2): 231-257.
- 이경주. 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이근복, 정우석.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스트레스의 다층분석. 한국사

- 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자료집 2007; 217~230.
- 이기혜. 중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의 구조적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명순. 청소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미숙.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신체 존중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 이순성.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이은경. 청소년의 행복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정신건강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7; 71-99.
- 이정숙, 최봉실. 일반도시 중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001; 10(4): 615-628.
- 임미향, 박영신.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삶의 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2006; 332-333.
- 임정은. 일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건강행동간의 관련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장휘숙.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997; 4(1): 88-106.
- 정연홍. 폐광지역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정영숙. 청소년 인터넷 중독 경향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조명환, 김정오, 권석만. 청소년의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1994; 16(2): 61-94.
- 조춘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조춘범. 가족 기능이 청소년의 폭력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게임 중독의 매개 효과 검증. 연세대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주석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결정짓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최명훈. 초등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최은석. 청소년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PedsQLTM 4.0)의 타당도 · 신뢰도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한국방정환 재단,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한국 어린이 · 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측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2010.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8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2008.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2010.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201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VI-중등6차. 2008.
- 행정안전부.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0.
- 행정안전부.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1.
- 허영선. 청소년이 지각한 행복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Bjorvatn B, Sagen IM, Ayane N, Waage S, Fetveit A, Pallesen S. The association between sleep duration, body mass index and metabolic measures in the Hordaland Health Study. *Journal of Sleep Research* 2007; 16(1): 66-76.
- Durkin K & Barber B. Not so doomed: computer game play and positive adolescent development.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02; 23: 373-392.
- Goldberg I. Internet A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1996.
- Griffiths MD, Davies MNO & Chappell D. Online computer gaming: A comparison of adolescent and adult Ggamers. *Journal of Adolescence* 2004; 27, 87-96.
- Keyes, CLM.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merica's youth: Toward comprehensive assessment.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2005; 4, 1-32.
- Kohatsu ND, Tsai R, Young T, Vangilder R, Burmeister LF, Stromquist AM. Sleep duration and body mass index in a rural population.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2006; 166(16): 1701-1705.

- Leung, L. Net-Generation attributes and seductive properties of the internet as predictors of online activities and internet addiction. *Cyber Psychology & Behavior* 2004; Jun, 7(3): 333-348.
- Park NS, Peterson C.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among young children: content analysis of parental descrip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06; 7: 323-341.
- Penedo FJ, Jason DR. Exercise and well-being: a review of mental and physical health benefits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y.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 2005; 18(2): 189-193.
- Shek DTL. Economic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adokescents with economic disadvanta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03; 32(4): 259-270.
- Varni JW, Seid M, Knight TS, Uzart K. The PedsQL 4.0 generic core scales: sensitivity, responsiveness, and impact on clinical decision-making.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002; 25(2): 175-193.
- Young KS. Pathological Internet Use: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athological Reports* 1996; 79: 899-902.

설문지

본 설문지에 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엄격히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인터넷 중독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 옳고 그른 답은 없습니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설문지는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타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은 내어 설문에 응답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본 조사에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함을 동의합니다.

예 , 아니요

9. 학교 성적은?

- ① 매우 못하는 편이다 ② 대체로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하는 편이다

10. 현재 학교생활의 만족도는?

- ①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②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만족스럽다 ⑤ 매우 만족스럽다

11. 부모님 학력은?

구 분	초등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아버지					
어머니					

12. 부모님과의 관계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4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 하는 편이다.					
5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 하는 편이다.					
6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13. 선생님과의 관계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2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3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14. 친구와의 관계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2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3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4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15. 담배를 피우니까?

- ① 현재 피운다 ② 피웠으나 지금은 피우지 않는다 ③ 피워본 적 없다

16. 술을 마십니까?

- ① 현재 마신다 ② 마셨으나 지금은 마시지 않는다 ③ 마셔본 적 없다

17. 일주일에 3일 이상 규칙적으로 걷거나 운동을 하였습니다?

- ① 아니요 ② 예 → 하루 평균 몇 분이나 하십니까? _____ 분

18. 본인이 생각하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받지 않는다 ② 거의 받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받는다 ⑤ 매우 많이 받는다

19. 하루 평균 수면 시간? _____ 시간

20. 지난 2주 동안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요

21.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앓았던 질병이 있습니까? 예 , 아니요

22. 학원이 끝나는 시각은?

- ① 9시 이전 ② 10시 ③ 11시 ④ 12시 ⑤ 12시 이후

8. 인터넷 이용 유형 중 게임 및 온라인 도박 (화투 · 포카), 음란물 (야한사진 · 동영상 · 소셜 등), 채팅을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 ① 매우 자주 사용한다. ②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③ 가끔 한다.
④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⑤ 전혀 하지 않는다.

9.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 중 가장 즐거운 활동은 무엇입니까?

- ① 인터넷 (게임, 채팅 등) 사용 ② 독서 ③ 운동

10.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약간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올해 학교에서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2. 올해 TV, 라디오 등의 매체에서 인터넷 중독의 홍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III. PedsQLTM 4.0 Generic Core Scale

지난 한 달 동안 각 항목이 나에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었는지 해당 칸에 동그라미를 쳐 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의 건강과 활동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거의 항상 있다
1	100미터 이상 걷기가 힘들다.					
2	뛰기가 힘들다.					
3	스포츠 활동이나 운동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4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들다.					
5	혼자 목욕이나 샤워를 하기가 힘들다.					
6	집의 허드렛일(책상 정리나 청소)을 하기가 힘들다.					
7	아프거나 통증이 있다.					

8	기운이 없다.					
나의 감정						
1	두렵거나 무섭다.					
2	슬프거나 우울하다.					
3	화가 난다.					
4	잠을 자기가 힘들다.					
5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 된다.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1	다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가 힘들다.					
2	다른 친구들이 나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3	다른 친구들이 나를 놀린다.					
4	내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못 한다					
5	또래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쳐지지 않고 따라 하기가 힘들다.					
학업						
1	수업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2	뭔가를 잘 잊어버린다.					
3	학교 수업을 쳐지지 않고 따라가기가 어렵다.					
4	몸이 좋지 않아 학교를 빠진다.					
5	병원에 가기 위해 학교를 빠진다.					

IV. 다음은 여러분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설문입니다.

여러분이 해당하는 한 곳에만 O표하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1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2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3	3	인터넷을 하다가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4	인터넷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5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시력 등에 문제가 생겼다.			
	6	다른 할 일이 많을 때에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2	7	인터넷을 하는 동안 나는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			
	8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3	9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10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11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			
4	12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다.			
	13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더 많다.			
	14	실제에서 보다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5	15	인터넷 사용시간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다.			
	16	인터넷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			
6	17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18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 한다.			
	19	인터넷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20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 한다.			

*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